

# 최영일 도의원 운전자 바뀌치기 들통

### 순창 쌍치 도로서 단독사고 내고 아내가 운전했다며 거짓 진술... 불구속 입건돼

최영일 도의원이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려한 사실이 들통났다

순창경찰서는 지난 26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최영일 전북도의회를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 21일 오후 10시 10분께 순창군 쌍치면의 한 도로 상에서 공사장 설치물을 들이받는 단독사고를 내고 자신의 아내가 운전했다며 거짓 진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여당 전북도당은 27일 이 사건에 대해 논평을 내고 "최 의원은 사고를 낸 뒤 출동한 경찰에게 거짓 진

술을 했으나 CCTV 영상을 통해 최 의원의 진술이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아내를 죄인으로 둔갑시켜버리는 최영일 도의원의 도덕성은 눈과귀를 의심케 하는 충격적인 수준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시 최 의원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아내가 사고를 낸 일단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진술하고 이후 연락을 받고 온 최 의원의 아내도 "내가 운전했다"며 최 의원과 입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은 사고현장 폐쇄회로 TV에 사고 후 운전석에서 내리는 최

의원의 모습이 포착돼 이를 증거로 최 의원을 추궁해 자백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돼 최 의원에 대해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했지만 이미 시간이 지나 수치는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여당 도당은 "과립치한 범죄를 저질러 도의회의 품격을 손상시킨 최 의원에 대해 전북도의회는 즉시 윤리위원회를 열고 징계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며 "최 의원 스스로가 이 사건에 대해 도민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자진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징계 및 사퇴를 요구했다.

최 의원은 형법 제 151조 2항에 의해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친족 등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해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되는 경우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해 처벌이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당은 "남원시의회 유홍 집대 및 당직자 음주사건, 소속의원 공직선거법 유죄 확정 등 최근 잇따른 비위사실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허리 꼴뚫한 더불어민주당은 도민들 앞에 진심어린 사과 및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상민 기자

## “신뢰와 사랑을 받는 경찰이 되자”

### 이후신 덕진경찰서장 취임

전주덕진경찰서는 27일 2층 회의실에서 각 과장, 계장, 지부대장, 파출소장 등 경찰관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0대 이후신 서장(사진)의 취임식 행사를 가졌다.

이 서장은 취임사에서 "현재 관내에서 해결해야 할 실종 사건이 있는 만큼 당분간 실종 사건에 주력해달라"며 "주민의 안전과 질서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업무를 수



행하고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인권을 중시하는 치안활동을 펼쳐 나갈 것과 건전하고 올바른 조직문화를 정착해 동지애를 키워 나갈 것"을 강조했다.

또한 "위와 같은 내용을 일관된 의지로 실천해 시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경찰 시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경찰이 되자"고 말했다.

한편 이후신 서장은 1994년 4월 22일 경찰간부후보생 42기로 경찰에 임용돼 전북청 치안지도관, 충남청 홍보담당관, 임실경찰서장, 전북청 수사과장을 역임하다가 이번 총경 급 정기인사에서 덕진경찰서장으로 부임했다. /이상민 기자

## 전주 '팔복새뜰마을 사업' 도시재생 우수 사례 선정

어둡고 칙칙한 전주시 팔복동 노후 공동촌 일대를 마을주민들의 손으로 활기를 불어넣은 '팔복새뜰마을사업'이 전국 도시재생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전주시는 최근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열린 '2017년 제3회 도시재생 한마당'의 주민참여 프로그램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팔복새뜰마을 사업이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전주시는 최근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열린 '2017년 제3회 도시재생 한마당'의 주민참여 프로그램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팔복새뜰마을 사업이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정부 주도로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을 위해 전국 각 지자체의 도시재생 정책과 사업의 경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다

대회에는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신청한 17개 팀 중 서류 심사로 선발된 12개 팀이 본선 무대에서 부문별로 사례 발표를 통해 경쟁을 벌였다.

팔복새뜰마을은 충실성과 창의성, 실현 가능성 등 4개 평가 지표에 걸쳐 골고루 좋은 점수를 얻었다.

또 사례 발표에서 낙후된 공업단지 주변 마을이 주민협회의 주도 하에 마을 공동체의 활동으로 활기를 되찾고 자생력을 갖춘 변화의 과정을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이 사업을 통해 마을 전체가 물리적으로 재생되는 것 뿐만 아니라 주민들 사이에는 소통과 화합, 여유라는 심리적인 재생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사업 추진의 큰 성과로 강조해 공감을 끌어냈다.

전주시 사회경제제지원단 관계자는 "팔복새뜰마을은 주민 소통과 화합을 통해 소득원 창출은 물론 정주 여건 개선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 전주동학농민혁명 추모공간 '녹두관' 조성

### 시, 내년 6월까지 건립... 2021년까지 파랑새관 등 조성 '역사문화벨트' 완성

전주완산공원과 곤지산 일대에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기념하는 추모공간이 들어선다.

전주시는 '전주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벨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모공간인 녹두관(가칭)을 내년 6월까지 건립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전주는 고부에서 봉기한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에 입성하고 전주화약을 계기로 각지에 집강소를 설치하는 등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꿈과 좌절의 역사와 기억들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도시다

이에 시는 국비 15억원과 시비 68억원 등 총 83억원을 들여 오는 2021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먼저 시는 관련 행정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 중 용도 폐쇄된 배수지를 리모델링한 후 동학 관련 콘텐츠로 채운 녹두관을 설치할 예정이다. 녹두관 주변에는 꽃동산을 조성기로 했다.

또 내년 6월 녹두관 준공에 맞춰 동학혁명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녹두관에는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한

역사적 기록과 유적지를 소개하는 공간과 동학농민군 유골 홀로그램을 활용한 전시공간 등이 조성된다.

현재 전주역사박물관에 임시로 안치돼 있는 동학농민군 지도자 유골도 이곳에 안장될 예정이다.

시는 녹두관 조성이 완료되면 오는 2021년까지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알리는 홍보·교육관인 파랑새관(가칭)과 민(民)의 광장, 삼지깎러리, 주차장 등을 조성해 '전주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벨트'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채규남 기자

## 전주자연생태관, 초등 '체험프로그램' 풍성

전주자연생태관은 겨울방학을 맞아 오는 1월 20일까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연생태를 배우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7일 밝혔다.

주요 체험프로그램은 세계 희귀곤충 디오라마 표본전시, 세밀화 원화 전시, 토요 생태교실, 가족영화 상영 등이다.

자연생태관 1층에서는 세계의 다양한 곤충들의 생태 모습을 재미있는 스토리와 함께 관찰할 수 있는 곤충 디오라마 표본이 전시된다.

또 생태관 2층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나비 애벌레 모습을 볼 수 있는 '세밀화로 보는 나비 애벌레' 그림책 원화 16점이 전시된다.

매주 토요일 오전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태교실이 운영된다. 직접

연을 만들어 날려보는 '날아라, 가오리'와 새해 달력 만들기, 자연물로 곤충을 만들어 보는 '곤충의 겨울나기'를 주제로 한 만들기 체험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생태교실은 자연생태관 홈페이지에서 사전 접수한 후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288-9540)으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도 매주 수·토요일 오후 2시 2층 영상실에서는 '도리를 찾아서', '미이행의 이중생활', '짱', '굿데이' 등 감동과 재미를 선사할 애니메이션 영화가 상영된다.

전주자연생태관 관계자는 "겨울방학 동안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많은 시민이 참여해 가족과 함께 뜻깊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 도내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 14곳 적발

새만금지방환경청은 올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이행하지 않은 14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새만금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올해 도내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업장 126곳을 점검한 결과이다.

미이행률은 11%로 지난해(15%) 대비 4%포인트 감소했다.

주요 미이행 사항은 ▲침사지와 가배수로 설치 등 수질영향 저감대책 미이행(11건) ▲세륜·세차시설 운영과 토사 적치장 덮개 설치 등 대기영향 저감대책 미이행(5건) ▲기타 사

면보호조치 미흡(2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환경청은 사업자가 협의내용 미이행 사항을 개선한 뒤 조치결과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협의내용 관리대상 미작성 1건과 변경협의 전 사전공사로 적발된 사업장 1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협의 미이행 사업장이 감소한 것은 올해 초부터 사업자 승인기관, 환경영향평가업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열고 사후관리 우수사례 발표회를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로 보인다. /이상민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